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표지 사용 양상**

- 종결형에서 {-었-} 사용 중심으로 -

장기남***

〈차 례〉

1. 서론
2. 시제·상의 기본적 논의
3. 용언 동작류의 판별 기준
4. 종결형에서 과거 시제 {-었-}의 사용 양상
5.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2언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문 목적 학습자의 시제 표지 습득과 용언 동작류에 따른 과거시제 {-었-}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어 학습자가 표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법 요소 중 하나가 시제 표현이다. 시간성 표현(Time Talk)은 동사(Verb)에 의해 표시되는데, 동사는 통사-의미적 특성으로 시제와 동작상과 동작태의 세 가지 의미자질을 갖는다. 시제(Tense)는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고, 동작상(Aspect)은 사태의 완료, 미완

---

* 여기서 시제란, 시제(tense)와 시상(aspect)을 포함한 의미로 쓰였다.

** 영남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본고를 세밀히 검토하고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깊이 감사드린다.

료를 나타내며 동작태(Aktionsart)는 기동, 지속, 종결을 나타낸다(신수송: 290).

본고는 Vendler(1967)의 동작류에 의한 상적 속성에 따라 동사를 상태동사, 행위동사, 성취동사, 완성동사로 세분화하고 심리동사를 추가하여 과거 시제 {-었-}의 사용 양상을 학습자 쓰기 자료(문어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고 하였다. 시간 표현에 대한 연구로 시상을 구분하려는 견해와 통합하려는 견해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통합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어: 제2언어, 시제, 상, 동작류, 과거시제, {-었-}의미론적 자질, 유사-통시적 연구

1. 서 론

본 연구는 제2언어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대학에서 학문을 수행하고 있는 L2 학습자의 시제 표지 중 과거 시제 {-었-}의 사용 양상을 쓰기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1)]

제2언어의 시제 및 상 습득(SLA)연구에 의미 및 형태 사용 연구의 한 방법으로 특정 문법을 습득하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묻는 의미-지향적 연구가 있다.[2)] 의미-지향적 연구는 시간성 표현의 습득을 연구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제2

---

1) 학습자 개인의 과거 상황을 제한된 시간(50분)에 작문하게 한 쓰기 자료를 수집(28명)하였다.

2) Bardovi-Harlig(2000:10-16) : SLA 연구 내 두 주된 연구
(1) 형태 지향적 연구(Form-Oriented Studies): 언어 형태 출현 분포가 어떠한가? (Berretta, 1995)
(2) 의미 지향적 연구(Meaning-Oriented Studies): 학습자들이 시간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Long & Sato, 1984)

언어의 시제 및 상 습득 연구에서 과거 표현 습득에 중점을 두고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L2로 한국어를 습득한 학습자의 시제 표지 사용 양상을 종결형[3]에서 과거시제 {-었-}[4]이 용언 동작류[5]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사용되는지를 학습자의 쓰기 자료[6]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과거 시제 표지 {-었-}의 사용을 살펴보고자 한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가 대학에서 학문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보고서(report)나 발표 자료(PPT), 쓰기 시험 등 고급 수준의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제 오류가 빈번히 나타남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시간성 표현(Time Talk)[7]은 언어마다 다른 체계와 틀로 표현이 되고 이 틀은 주로 종결형에 나타나는 용언 동작류에 의해 표시된다. 동작류로 표시되는 동사(Verb)에는 통사-의미적 특성을 가지는데 그 특성으로 시제, 동작상, 동작태의 자질을 갖는다. 따라서 학습자가 시제를 습득할 때 시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부차적 의미인 시상도 함께 인식하게 된다. 시상(tense-aspect)[8]은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내용 전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제2언

---

3) 최동주(1995:180): 종결법(서술어) : 문장을 종결지으면서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4) 최동주(1995:148): {-었-}은 '과거'를, {-었-}이 없는 형식은 '비과거'의 의미를 타나낸다고 밝히고 있다.

5)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동사를 대상으로 그 의미에 따라 동사를 분류함으로써 동사의 의미 자질을 분석함(Vendler: 1967, Andersen: 1991).

6) 학습자 개인의 과거 상황을 제한된 시간(50분)에 작문하게 한 쓰기 자료를 수집(28명)하였다.

7) Bardovi-Harlig(2000:10-22): 어휘적 수단, 문법적 수단, 화용적 수단 등 3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8) 고영근(2007:89-99)의 언어학에서 시간성 문법요소를 총칭하여, 권재일(1992)은 시제법, 최동주(1995)는 시상체계, 이익섭·채완(1999)은 시제, 고영근(2007)은 시상법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시제, 동작상, 서법은 서로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관련성을 가지고 시상법의 체계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어에서 시제 습득 및 사용은 학습자 모국어의 영향을 뚜렷이 받게 되는 문법 요소이므로 학습자가 시제를 습득한 후에도 L2의 시제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문법 항목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제 표지 중 종결형에 나타나는 과거시제 {-었-}을 용언 동작류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1.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언어 습득 연구는 '연구 기간, 자료 수집,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유사-통시적 연구 방법[9]을 따랐다. 유사-통시적 연구 방법은 각각 다른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로부터 단일 시점에서 언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여러 시간에 걸쳐 개개인을 관찰한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제{-었-}의 사용 양상을 알아내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문 계열 재학생 2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10]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경험적 상황에 대한 글쓰기를 유도하였다. 자료 수집은 중간고사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과거 시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 글쓰기로 시간은 50분으로 제한하여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습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시제 {-었-} 사용 양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살펴보았다.

---

9) 자료 수집 방법에는 수집 기간에 따라 통시적 연구(longitudinal)와 공시적 연구(cross-sectional), 그리고 유사-통시적 연구(pseudo longitudinal)가 있다. Bardovi-Harlig and Reynolds(1995), Bardovi-Harlig(2000:114-120), 유사-통시적 연구방법을 연구 결과로 일반화시킬 수 있었다.

10) 대학에 재학 중인(1, 3, 4학년) 학습자로 중국인 24명, 기타 4명

첫째, 문장에서 과거시제 {-었-}을 사용한 문장과 사용하지 않은 문장에 따라 과거 문장과 비과거(Ø) 문장으로 구분하였다.[11]

둘째, 종결형에서 용언 동작류)[12]에 따라 과거시제 {-었-}의 출현 및 사용 양상을 구분하였다.[13]

셋째, {-었-} 사용의 숙달도별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14]로 나누어 동작류에 따른 {-었-}의 사용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여기서 국어학에 대한 문법적 쟁점과 분석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한국어 습득과 사용이라는 실용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또한 시제와 상의 개념 논의나 동사 분류 쟁점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국내 시제・상 관련 연구에서 이채연(2008)은 '동작류에 따른 한국어 시제와 동작상 습득 양상'에서 형태적으로 같은 동작상을 습득하더라도 용언 동작류에 따라 습득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다. 박선희(2009)는 과거 시제 습득 연구에서 상가설을 기반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과거 시제 사용에 대한 비교와 학습자 집단에 따른 과거 시제 사용을 관찰한 바 있다. 박수진(2011)은 '한국어 학습자의 서사 담화 연구'에

---

11) (1) 과거 시제: {-었-}이 출현한 문장
(2) 비과거(Ø): {-었-}이 출현하지 않은 문장으로 구분하였다.

12) 안동환(1980)은 동사 어휘적 특성에 따라 상태(state), 활동(activity), 완수(accomplishment), 성취(achievement)의 넷으로 나누었다. Vendler 등의 외국 학자의 분류를 모형으로 삼아 일정한 틀을 세워 한국어의 동작류를 분류한 것이다(고영근, 2007:83-99).

13) 시제 {-었-}을 선행 용언의 동작류에 따라 구분한 것은, {-었-}의 출현 양상이 선행 용언의 동작류에 따라 의미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4) 학습자 28명을 세 집단(18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주 35 : 참고)

서 한국어 학습자가 서사 담화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살펴보고, 서사 담화에 나타나는 시제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해영(2003)은 {-었-}처럼 매우 일찍 배우는 시제표현 문법항목도 고급학습자가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 시제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에서 또한 제2언어 시제 및 상 습득 연구[15]가 폭넓게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시제 형태소가 학습자 언어에 출현하는 시기를 관찰한 연구[16]와 동작류가 시제 및 동작상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제안한 연구[17]들로 구분할 수 있다.

Andersen(1991)은 스페인어를 L2로 배우는 아동 연구에서 과거 시제 사용이 완성 동사에서 처음 나타나다가 성취동사, 행위동사, 상태동사 순으로 과거 시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Salaberry(1998)은 쓰기 과제에서 학습자 스스로 잘 모르는 동사를 통제했기 때문에 동사 유형 차이 관찰은 부족했지만 동작류에 따른 동작상 형태의 차이를 보여준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Bardovi-Harlig와 Reynolds(2000)는 영어 L2 성인 학습자의 과거 시제 습득을 조사하였다. 시제와 동작상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단순 과거를 유도하는 문제에서 완성동사와 성취동사의 정답률이 상태동사나 행위동사보다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이 시제와 상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소를 사용할 때 '동사의 의미적 특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

15) Bardovi-Harlig(2000:114-120). 언어 학습 논문 시리즈(Longitudinal Studies of the Acquisition of Tense - Aspect Morphology)

16) Bardovi-Harlig: *The Emergence of Verbal Morphology*(1997, 2000:93-95).

17) Anderson & Shirai(1996), Bardovi-Harlig(2000:191-226)
시상가설을 (1)과거 시제, (2)진행상, (3)완료상으로 요약 설명하고 있다.

2. 시제 · 상의 기본적 논의

시제(tensc)는 시간상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상황의 위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대체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삼분 대립을 보이거나 '과거: 비과거'의 이분 대립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최동주, 1999:16).

상(aspect)은 '상황의 내적 시간구조를 바라보는 방법'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서 일반적으로 '완료상(perfective)'과 '비완료상(imperfective)'의 대립관계를 말한다(최동주, 1995:22). 시제와 상은 의미론적으로 서로 관련 있는 문법범주이다. 시제와 상이 모두 시간적 표현과 관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2언어의 시제 및 상 습득 연구에서 시상 가설(Aspect Hypothesis)을 연구한 Bardovi-Harlig(1992:253-273)의 이론[18]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어 학습자의 과거 시제 {-었-}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3. 용언 동작류의 판별 기준

시제 및 상 습득 연구는 동작류가 동사 의미론에 처음 응용된 Vendler(1967)의 상적 분류[19]에서 비롯해서 이를 Andersen(1991)은 의미론적 자질로 구분하여 언어습득에 적용했다. Andersen은 '동사

---

18) 상가설(Aspect Hypothesis): 동사가 가진 내재적인 상적 속성을 언어 맥라적 차이로 보는 가설 : L2 습득 연구에서는 모국어 습득 연구에서 나타난 동작류에 따른 시제와 동작상 습득 양상 차이를 Andersen(1990)이 '가설'로 수용하여 연구의 기초로 삼았고 Robisob(1990), Bardovi-Harlig, (1992a), Andersen과 Shirai(1994) 등 상가설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9)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동사를 대상으로 그 의미에 따라 동사를 분류하고 동사의 의미 자질을 분석함

유형'을 상적 자질에 의한 분류로 상태동사, 행위동사, 성취동사, 완성동사로 세분화[20]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Andersen의 Vendler 카테고리를 따랐고 그것은 오늘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분석적 틀이다. Bardovi-Harlig,(1992a, 1995, 1996, 1998, 2000)[21] 또한 이 분석기준을 토대로 제2언어 습득의 상가설 연구에 집중했다.

[표 1] 상적 분류와 의미 자질

자질 (features)	어휘상 (lexical aspectual categories)			
	상태동사	비 상태 동사		
	상태동사 (states)	행위동사 (activities)	완성동사 (accomplishments) (telic event)	성취동사 (achievements) (punctual event)
순간성 (puntual)	-	-	-	+
종결성 (telic)	-	-	+	+
역동성 (dynamic)	-	+	+	+

본고에서는 위 네 가지 동사 유형에 심리동사[22]를 추가하여 살

---

20) (Andersen, 1991:311) (1) 3가지 자질
순간성(puntual): 순간적으로 생각되거나 어떤 기간을 갖는 동사로부터 한 점을 가지거나 순간으로 생각될 수 있는 술어
종결성(telic): 끝점이 없는 것으로부터 끝점이 있는 것을 구분해 주는 술어
역동성(dynamic):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부터 역동적인 동사를 구분.
(2) 어휘상의 특성: 상태동사(states), 행위동사(activities), 완성동사(accomplishments), 성취동사(achievements)
(3) 역동성의 자질에 따라 동사의 세분화
① 상태동사 ② 동적동사
행위동사(activities), 완성동사(accomplishments), 성취동사(achievements)

21) Bardovi-Harlig,(1992a, 1995) : 실험 설계로 빈칸 채우기 과제
(1996, 1998) : 실험 설계로 영화보고 다시 쓰기

22) 이익환(1994:42)은 한국어에서는 전통적인 분류에 더하여 심리동사 부류

펴보았다. 다음은 용언 동작류[23]를 분류한 예문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상태 동사 : [- 순간성, - 종결성, - 행위성]
동적 자질을 갖지 않으며 상태가 지속된다. 예로, 조용하다 귀엽다, 예쁘다 등을 들 수 있다.

(1) 가. 기숙사 방은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다.
나. 어릴 때 부모님이 사 주신 강아지가 귀여웠다.
다. 내 여자 친구는 언제 봐도 예쁘다.

2) 행위동사 : [-순간성, -종결성, +행위성]
지속성을 가지며 동시에 임의적 끝점을 가지며, 행위성이 있다. 걷다, 때리다, 치다, 말하다, 놀다, 사귀다 등 예로 들 수 있다.

(2) 가. 처음 고등학교 때 여자 친구를 사귀었다.
나. 학생인데 공부하지 않고 자주 친구와 같이 놀았다.
다. 연인들이 공원을 걷는다.

3) 완성 동사 : [-순간성, +종결성, +행위성]
지속성을 가지며 동시에 명확한 끝점을 가지며 행위성이 있다. 닫다, 열다, 눕다, 짓다, 쓰다, 만들다, 앉다, 입다 등 예이다.

(3) 가. 어제 우리는 같이 요리했다.
나. 항상 주말에 마트에서 과일을 산다.
다. 날씨가 더워서 문을 열었다.

4) 성취동사 : [+순간성, +종결성, +행위성]

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고영근(2007:288)의 분류에서 심리동사를 '심리인지동사'로 사용한다.

23) 동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자질 속에서의 상 자질

지속성을 갖지 않으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나타내며, 완결이라는 종결점이 있다.
발견하다, 도착하다, 그리다, 떠나다, 잠들다, 찾다, 잃다, 뜨다, 감다, 이기다, 때리다, 차다, 꼬집다 등이 성취 동사에 속한다.

(4) 가. 작년 8월에 한국에 도착했다.
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다. 나는 토픽 시험에 붙었다.

5) 심리동사 : 심리동사를 별도의 동작류로 분류해 내야 할 필요성을 이익환(1994)과 고영근(2007)[24]이 밝히고 있다.
부럽다, 기쁘다, 자랑스럽다, 가엽다, 외롭다, 느끼다, 바라다 걱정스럽다 등이 심리동사의 예이다.

(5) 가.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공부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 밤길을 걷는데 조금 무서웠다.
다. 외국 생활은 외롭다.

위에서 살펴본 용언 동작류에 따라 학습자의 시제 표지 결합에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종결형에서 과거 시제 {-었-}의 사용 양상

4.1. 용언 동작류별 과거시제 {-었-}[25]의 사용 양상

---

24) 이익환(1994:42)은 한국어에서는 전통적인 분류에 더하여 심리동사 부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고영근(2007:288)의 분류에서 심리동사를 '심리인지동사'로 사용한다.

25) 학습자 문장에서
(1) 과거 문장에서 {-었-}을 사용한 경우 - 정(O)
(2) 비과거 문장에서 {-었-}을 사용한 경우 - 오(X)

용언 동작류가 의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보이는 상가설은 시제 습득에서도 동작류에 따라 발달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가설이다. 시상가설에 대한 연구는 과거시제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26] 시상가설은 제2언어 습득의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27]

본고는 수집된 학습자 자료를 종결형 문장에서 먼저, 과거 시제 {-었-}을 사용한 문장과 {-었-}을 사용하지 않은 비과거(Ø) 문장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었-}을 과거형 문장에 맞게 사용했으면 정(O)으로 처리했고, 비과거(Ø) 문장에서 과잉 사용했으면 오(X)로 처리하였다. 또한, 비과거(Ø) 문장에서 현재 또는 미래 문장으로 {-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은 정(O)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오(X)로 구분하였다. 셋째, 용언 동작류를 세분화(성취, 완성, 행위, 심리, 상태)[28]하여 시제 {-었-} 사용이 동작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가를 [표 2]와 [표 3]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학습자 28명 중 {-었-} 사용의 '숙달도'에 따라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사용 양상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살펴보았다. 학습자 자료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6) 가. '냐오차오' 운동장이 괜장히 크고 아름다워서 기분이 너무 좋고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나. 2008년에 가족과 여자친구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도북경

---

(3) 과거 문장에서 {-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오(X)
(4) 비과거 문장에서 {-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정(O)

26) Bardovi-Harlig(2000:191-272), 연구의 업적들이 정리되어 있다.

27) Shirai(2004), 연구는 동일 숙달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사 통시적 연구, 그리고 종적인 연구로 나누어 비교 정리해 시상가설연구들을 메타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28) 이익환(2000:32-34); (애산 학보15집) : 이전의 연구들 (양인석 1972, 이정민 1976, 김홍수 1989)을 참고하여 심리동사를 분류하고 있다.

에 구경했어요.
다. 이번 생일날에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6가)의 예문은 상태동사에 {-었-}을 맞게 사용한 예이고, (6나)는 행위동사에 {-었-}을 맞게 사용한 예이다. (6다)의 예는 문맥상 과거 문장이 아니라 다가올 생일날 받을 선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행위동사에 {-었-}을 과잉 사용한 예로 비과거(Ø) 문장에서 오(X)로 처리한 예이다.

위 예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시제 사용 양상을 용언 동작류에 따라 세분화(성취, 완성, 행위, 심리, 상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과거 상황 {-었-}이 출현한 경우 (백분율)

동작류 / 총 문장 수			과거 {-었-}						
			성취	완성	행위	심리	상태	계	%
종결형	총문장수	정	8	84	16	16	50	174	38.2
		오	0	0	0	0	1	1	0.2
	456	계	8	84	16	16	51	175	38.4
		%	1.8	18.4	3.5	3.5	11.2		

[표 2]에서와 같이 과거 문장에서 {-었-}을 잘 사용한 양상이다. 학습자(28명)가 사용한 종결형 문장 수는 총 456회 중 과거 {-었-}은 175회(38.4%)를 사용하였다. 문장에 맞게 사용한 횟수는 174회(38.2%)이고, 틀리게 사용한 횟수는 1회(0.2%)로 나타났다. 학습자가 과거 문장에서 {-었-} 사용은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했다. 그러나 [표 3]을 살펴보게 되면 사용 양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표 3] 비과거(Ø) 문장에서 {-었-}이 출현하지 않은 경우

동작류 / 총 문장 수			비과거(Ø)						
			성취	완성	행위	심리	상태	계	%
종결형	총문장수 456	정	1	3	23	27	69	123	27.0
		오	7	23	21	24	83	158	34.6
		계	8	26	44	51	152	281	61.6
		%	1.8	5.7	9.6	11.2	33.3		

(7) 가. 우리가 여행 안 가면 이런 좋은 추억도 없습니다.
나. 만리장성을 구경한 후에 국민이 너무 위대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7가)는 비과거(Ø) 문장으로 맞게 처리한 예이다. 그러나 (7나)는 심리동사에 시제 {-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오(X)로 처리한 예이다.

[표 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 학습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학습자 개인의 과거 상황을 작문하게 한 쓰기 자료이므로 과거 상황이 나타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과거(Ø) 문장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종결형 456회 사용 중 비과거(Ø) 문장은 281회(61.6%)를 사용하였다. 비과거(Ø) 문장이 현재 또는 미래시제로 {-었-}이 출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 횟수는 123회(27.0%)이고, 과거 시제 {-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비과거(Ø) 문장이 158회(34.6%)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개인 과거 상황 쓰기에서 여전히 과거시제 {-었-}의 사용을 어려워하거나 또는 특정 동작류에서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비과거(Ø) 문장(34.3%) 사용의 원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과거시제 표지 {-었-}의 사용 양상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비과거(Ø) 문장을

[표 3]과 같이 살펴보았다. [표 4]는 과거 {-었-} 문장과 비과거(Ø) 문장을 비교해 살펴보았다.

[표 4] 과거{-었-}/ 비과거(Ø) 사용 양상 비교 (백분율)

동작류 / 총 문장 수			과거 {-었-}		비과거(Ø)		총계	%
			계	%	계	%		
종결형	456	정	174	38.2	123	27.0	297	65.1
		오	1	0.2	158	34.6	159	34.9
	계	수	175	38.4	281	61.6	456	100

[표 4]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종결형 문장 총 456회 중 과거 문맥에서 바르게 사용한 {-었-}의 사용 횟수는 174회(38.2%)이고, 비과거(Ø) 문장에서 {-었-}을 잘못 쓴 횟수는 158회(34.6%)이다. 전체 456회 문장 중에서 {-었-} 사용 횟수는 332회(73%)사용했지만 정확도는 174회(38.2%)에 불과하므로 학습자 과거시제 {-었-}의 사용 정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학습자에게 제시한 개인 과거 상황을 유도한 쓰기 자료에서 비과거(Ø) 문장(61.6%)이 과거 문장(38.4%)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과거시제 표지 {-었-}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결과로 보았다. 향후 다량의 학습자 자료 분석을 통해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고자 한다.

4.2. 동작류에 따른 {-었-}의 사용 양상

학습자들이 시제와 상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소를 사용할 때 '동사의 의미적 특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과거시제 {-었-}을 사용할 때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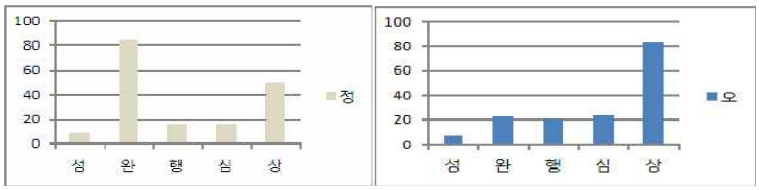
[표 5] 동작류에 따른 {-었-}/ 비과거(Ø) 사용 양상 (백분율)

			(1) 과거{-었-}							(2) 비과거(Ø)							총계	%
			성	완	행	심	상	계	%	성	완	행	심	상	계	%		
종결형	456	정	8	84	16	16	50	174	38.2	1	3	23	27	69	123	27.0	297	65.1
		오	0	0	0	0	1	1	0.2	7	23	21	24	83	158	34.6	159	34.9
	계	수	8	84	16	16	51	175	38.4	8	26	44	51	152	281	61.6	456	100
		%	1.8	18	3.5	3.5	11			1.8	5.7	9.6	11	33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의 과거 시제 {-었-} 사용 문장과 비과거(Ø) 문장에서 용언 동작류에 따라 {-었-} 사용 양상를 볼 수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었-} 사용의 빈도수와 {-었-} 사용의 정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표 6]과 <그림 1>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동작류별 {-었-}의 사용 빈도수 (백분율)

동사 류		상태	완성	심리	행위	성취	계	%
{-었-}	정	50	84	16	16	8	174	52.4
{-었-}	오	83	23	24	21	7	158	47.6
계		133	107	40	37	15	332	100
정답률 (%)		40.1	32.3	12.0	11.1	4.5		



<그림 1> 과거 시제 {-었-}의 사용 정·오답 사용 비교(%)

[표 6]은 용언 동작류에 따라 {-었-}의 사용 빈도수를 보면 전체 문장 종결 수 456회 중 {-었-}의 출현 빈도수는 332회(72.8%)다. 그

중 상태 133회(40.1%), 완성 107회(32.3), 심리 40회(12.0%), 행위 37회(11.1%), 성취 15회(4.5%)순으로 학습자들이 상태동사를 133회(40.1%)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표 7] {-었-}의 사용 정확도를 비교해 살펴보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7] 동작류별 과거 시제 {-었-}의 사용 정확도 (백분율)

동사 류		완성	성취	행위	심리	상태	계	%
{-었-}	정	84	8	16	16	50	174	52.4
{-었-}	오	23	7	21	24	83	158	47.6
계		107	15	37	40	133	332	100
정답률 (%)		78.5	53.3	43.2	40.0	37.6		

[표 7]에서 동작류별 사용 정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332회 중 완성에서 {-었-}의 107회(32.2%)를 사용했고 그 중 정확도는 84회(78.5%)로 높게 나타났다, 성취 8회(53.%), 행위(43.2%), 심리(40.0%), 상태 50회(37.6) 순으로 상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29]

Bardovi-Harlig(2000:227-230)의 제2언어 습득 상 가설 연구에서 학습자의 과거시제 표지 습득이 성취동사에서 시작하여, 완성동사로 행위동사, 상태동사[30] 순으로 이행한다는 상가설의 예측에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작류에 따른 학습자 과거시제 {-었-}의 사용은 동작류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본

29) 과거 시제 {-었-}이 동작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부분에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가 동작류 사용 중 심리・상태 동사를 많이 사용했지만 오류 또한 많이 나타난 결과에서 용언 동작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상가설 이론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30) 최동주(2009:62)는 상태동사에 결합한 {-었-}이 '과거'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19세기 말인데 이는 {-었-}이 비상태동사(행위동사, 성취동사, 완성동사)에서 시작하여 상태동사로 확대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밝히고 있다.

고에서도 확실히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장에서 살펴 본 <완성, 성취, 행위, 심리, 상태> 순으로 완성, 성취에서 {-었-} 사용의 정확도가 높았고, 심리, 상태에서 {-었-} 사용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본고에서 특별히 살펴본 심리동사(psych verb)에서도 학습자들은 시제 결합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동사는 상태나 과정 또는 속성을 나타내는 술어[31](동작류)이므로 국어의 상태동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숙달도별로 나눈 그룹별 사용 양상은 어떠한지 비교해 살펴보았다.

4.3. 숙달도별 (상위그룹・중위그룹・하위그룹)[32] 비교 분석

[표 8] 그룹별 {-었-} 사용 정확도 비교 (백분율)

	동사	성취	행위	완성	심리	상태	계
상위 그룹 (6명)	정	1	6	22	6	15	50
	오	0	0	1	1	6	8
	합계	1	6	23	7	21	58
	%	100	100	95.7	85.7	71.4	86.2

31) 김용하(2000:73)는 심리동사(psych verb)에서 학습자들은 시제 결합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동사는 상태나 과정 또는 속성을 나타내는 술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국어의 경우에는 이들을 형용사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론적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 '심리동사'를 술어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32) (1) 학습자 28명을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과거 시제{-었-} 사용 '정확도'에 따라 [상위그룹] 6명(81-91%), [중위3그룹] 6명(50-69%), [하위그룹] 6명(13-30.0%) -18명 구분
(2) 나머지 학습자 10명은 상위와 중위그룹 사이 4명과 중위와 하위그룹 사이 4명, 과거 시제가 나타나지 않은 2명으로 제외시켰다.
(3) 제외시킨 이유는 그룹별 차이를 좀더 명료하게 살피기 위한 목적이었다.

	동사	성취	완성	행위	상태	심리	계
중위 그룹 (6명)	정	1	28	5	11	1	46
	오	0	4	1	22	3	30
	합계	1	32	6	33	4	76
	%	100	87.5	83.3	33.3	25.0	60.5

	동사	완성	심리	상태	행위	성취	계
하위 그룹 (6명)	정	7	3	5	1	0	16
	오	9	10	18	9	4	50
	합계	16	13	23	10	4	66
	%	43.8	23.1	21.7	10.0	0.0	24.2

[표 8]은 그룹별 {-었-} 사용 정확도를 비교한 표이다. 세 그룹 18명의 {-었-} 사용 총 빈도수는 200회 중 정확도는 112회로 나타났다. {-었-} 사용의 빈도수는 순서와는 차이가 있다. 차이를 숙달도별로 나눈 그룹별로 {-었-} 사용의 빈도수와 {-었-}의 정확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1) [상위그룹]

(8) 가. 그리고 일을 하던 병원에 갔다.
나. 그래서 그 때는 내가 매우 부모님을 걱정했다.
다. 그 동안 내 부모님을 매우 힘들었다.

[표 9] [상위그룹] 과거시제 {-었-}의 사용 빈도수 (백분율)

	동사	완성	상태	심리	행위	성취	계
상위 그룹	정	22	15	6	6	1	50
	오	1	6	1	0	0	8
	합계	23	21	7	6	1	58
	%	39.7	36.2	12.1	10.3	1.7	100

(8가)와 (8나), (8다)를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상위그룹 학습자 쓰기는 과거 문장에서 {-었-}의 사용이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된 것을 표 8]를 통해 볼 수 있다. 상위그룹 학습자의 {-었-}의 사용 빈도수 총 58회 중 사용 순위별은 다음과 같다. <완성, 상태, 심리, 행위 성취> 순으로 가장 사용 빈도수가 높은 동사는 완성 23회(39.7%)이고 성취 1회(1.7%)로 가장 낮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0]에서는 {-었-} 사용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표 10] [상위그룹] {-었-}의 사용 정확도 (백분율)

	동사	행위	성취	완성	심리	상태	계
상위 그룹	정	6	1	22	6	15	50
	오	0	0	1	1	6	8
	합계	6	1	23	7	21	58
	%	100	100	95.7	85.7	71.4	86.2

상위 그룹의 과거시제 {-었-} 사용 정확도는 총 332회의 출현수 중 58회 사용, 정확도 50회(86.2%) 사용을 보였으며, 동작류로는 행위, 성취, 완성, 심리, 상태 동사 순으로 나타났다.

{-었-} 사용 빈도수에서 <완성, 상태>가 비교적 높게 사용 되었지만 {-었-} 사용의 정확도에서는 <행위, 성취>가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비교적 동작류와 관계없이 정확도가 높았다. 상위 그룹은 문장에서 과거 시제 {-었-} 사용을 86.2%에 해당하는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맥에 맞는 동사를 알맞게 골라 정확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시제 습득과 사용에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성취 동사(1회, 100%)수가 적게 나타나 연구의 결과로 보기에 부

족함이 있으나 앞선 (박선희, 2009)[3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추후 학습자 자료를 좀 더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중위 그룹]

(9) 가. 한국말 배운 한 후에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나.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쉬운 *말을 할 수 있었다.*
다. 우리 사장에 가더니 야재 *싸다.

[표 11] [중위 그룹] {-었-}의 사용 빈도수 (백분율)

	동사	상태	완성	행위	심리	성취	계
중간 그룹	정	11	28	5	1	1	46
	오	22	4	1	3	0	30
	합계	33	32	6	4	1	76
	%	43.2	42.1	7.9	5.3	1.3	100

중위그룹 자료 (9가)와 (9나)의 예문은 맞게 사용한 문장이지만 (9다)와 같은 문장은 비문의 예이다. 중위그룹 학습자 사용 양상을 [표 11]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표 11] 중위 그룹의 {-었-} 사용 빈도수 76회 중 빈도수가 순위별은 다음과 같다. <상태, 완성, 행위, 심리, 성취> 순으로 중위그룹 학습자의 사용 빈도수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상태동사 33회(43.2%)이고 성취동사 1회(1.3%)는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그룹보다 상태, 완성의 사용 빈도수는 좀더 높은 사용

33) 박선희(2009:106): 고급 숙달도를 지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과거시제 형태소 습득이 <달성(성취), 행위, 완성, 심리, 상태> 순으로 확산되어 감을 밝히고 있다.

을 보였지만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 정확도에서 상위그룹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2]에서 {-었-}의 사용 정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중위 그룹] {-었-}의 사용 정확도 (백분율)

	동사	성취	완성	행위	상태	심리	계
중간 그룹	정	1	28	5	11	1	46
	오	0	4	1	22	3	30
	합계	1	32	6	33	4	76
	%	100	87.5	83.3	33.3	25.0	60.5

[표 12]의 중위그룹 {-었-}의 사용 정확도는 총 76회사용으로 그 중 46회(60.5%) 사용의 정확도를 보였다. 동작류는 <성취, 완성, 행위, 상태, 심리> 결과로 나타났다. 전체 {-었-}의 사용 횟수는 (76회)로 상위그룹 사용 횟수보다 많으나 비과거 문장 사용이 30회(39.5%)로 상위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상태동사는 빈도수에 비해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위 그룹은 상위 그룹에 비해 상태동사에서 과거 시제 {-었-}의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Collins(1999b)은 학습자들이 행위 동사나 상태 동사보다 사건에서 성취, 완성에 더 자주 현저하게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와 중위그룹이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3) [하위 그룹]

(11) 가. 어렸을 때 나의 꿈을 요리사가 되고 *싶겠습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먹여서 *행복할 것입니다.
다. 저는 행복한 가족에서 *탰어던데요.

(11가)와 (11나) 예문은 상태 동사로 시제 {-었-} 사용이 틀린 문장이고, (11다)는 성취 동사에 {-었-} 사용이 틀린 경우이다.

[표 13] [하위 그룹] {-었-}의 사용 빈도수 (백분율)

	동사	상태	완성	심리	행위	성취	계
하위 그룹	정	5	7	3	1	0	16
	오	18	9	10	9	4	50
	합계	23	16	13	10	4	66
	%	34.8	24.2	19.7	15.2	6.1	100

[표 13]의 하위 그룹의 {-었-} 사용 빈도수 총 66회로 순위별은 다음과 같다. <상태, 완성, 심리, 행위, 성취 > 순으로 하위 그룹 학습자의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상태동사 23회(34.8%)로 상위그룹과보다 사용의 빈도수에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었-}의 사용 정확도에는 많은 문제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상태동사에서 비과거(Ø) 문장이 (34.8%)로 나타난 결과를 동사가 가진 내재적인 상가설의 영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Bardovi-Harlig와 Reynolds(1995)는 단순과거에서 완성, 성취의 정답률이 상태나 활동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14] [하위 그룹] {-었-}의 사용 정확도 (백분율)

	동사	완성	심리	상태	행위	성취	계
하위 그룹	정	7	3	5	1	0	16
	오	9	10	18	9	4	50
	합계	16	13	23	10	4	66
	%	43.8	23.1	21.7	10.0	0.0	24.2

[표 14] 하위그룹 과거시제 {-었-}의 사용 정확도를 살펴본 결과 총 66회 사용 중 사용 정확도가 16회(24.2%)로 아주 낮은 사용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완성 16회 사용 중 7회, 정답률(43.8.0%), 심리 13회 출현 중 3회 정답률(23.1%), 상태 23회 중 5회(21.7.%), 행위 10회 중 1회 정답률(10.0%), 성취 동사 4회 사용 중 4회 모두 오류(0%)로 전체 {-었-} 사용 정확도는 24%의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었-}의 사용 횟수 66회는 상위그룹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었-} 사용의 정확도에서 16회(24.2%)로 아주 낮은 사용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하위 그룹은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의 시제 {-었-} 사용에서 그룹별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상위 그룹은 {-었-}을 사용하는 빈도수나 정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반면, 중위 그룹에서 하위 그룹으로 내려 갈수록 빈도수와 정확도에서 학습자는 과거시제 의무 맥락에서 비과거시제 문장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동작류에 따른 {-었-}의 사용 양상은 완성 동사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상태 동사에서는 학습자가 시제 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위 그룹에서 밝힌 문제와 유사한 결과로 추후 연구에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앞선 논의들과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dersen(1991)[34]에서 (1)과거시제 사용이 완성동사에서 처음 나타나다가 성취, 행위, 상태 순으로 사용했다는 사실과 (2)비과거(Ø)에서는 상태, 행위, 성취, 달성 순서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Bardovi-Harlig와 Reynolds(1995)[35]에서는 단순과거에서 완성, 성

34) Andersen(1991): 영어권 학습자 2명 어린이 - 서술어 - (분석기준: vendler)

35) Bardovi-Harlig와 Reynolds(1995): 학습자 182명, 빈칸 채우기 과제(분석기준 : vendler)

취의 정답률이 상태나 활동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채연(2008)[36]에서 분석한 결과는 수준 높은 '집단 다'는 용언 유형에 관계없이 정답률이 높다는 결과는 본고 상위 그룹 결과와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낮은 '집단 가'와 '집단 나'는 용언의 [+상태성] 여부는 학습자의 과거 {-었-}의 사용을 가장 방해하는 동작류라고 제시하고 있다.

박선희(2009)는 중국인 학습자 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과거시제 사용에 대한 비교와 집단 구분에 따른 과거 시제 관찰 결과, 중국인 학습자들의 과거시제 사용은 상가설이 예측한 바를 확인해 주었다고 밝히며, 중국인 학습자들은 달성(성취)에서 과거 시제를 먼저 습득하고, 상태동사에서 가장 낮게 습득, 행위, 완성, 심리인지동사의 순서대로 습득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상 집단'도 상태, 심리인지동사에 대한 과거 시제사용은 모어 화자 수준에 근접하지 못한 사실을 예로 들며, 한국어 교육현장에 교수 방안을 새로이 모색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과거시제 표지 {-었-}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검토한 바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에게 과거시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 작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시제 {-었-}을 사용한 문장은 174회(38.2%)에 불과했다. {-었-}이 사용해야 하는 문맥에서 출현하지 않은 비과거(Ø) 문장 159회(34.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학문을

36) 이채연(2008): 중국인 학습자 51명, 빈칸 채우기 과제

수행하는 고급 학습자(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L2 시제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고민해야할 과제이다. 또한, 과거시제 {-었-} 사용은 상위 그룹을 제외한 중위 그룹에서 하위 그룹 순으로 시제 사용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동작류에 따른 과거시제 {-었-} 사용에서는 <완성, 상태, 행위, 심리, 성취> 순으로 수준이 낮은 그룹일수록 학습자들이 동작류에 따른 시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완성동사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하는 반면에 상태동사에서 과거시제를 가장 어려워 한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Andersen(1991)의 연구와, Bardovi-Harlig와 Reynolds(1995)와 이채연(2008)과 박선희(2009) 연구에서 {-었-} 사용의 빈도수에서나 정확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이 제2언어의 시제 습득을 어려워하고 또한, 동작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 예이다. 본 논의의 자료가 다량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지만 향후 한국어 학습자 자료를 분석하여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고영근,『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2007, pp. 83-99, p. 287.
고영근・구본관,『우리말 문법론』집문당, 2008, pp. 398-402.
김용하.「한국어 심리동사의 논항 구조와 겹주어」, 2002, p. 73.
문숙영,「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 89-90.
박선희,「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과거 시제 습득 연구」,『한국어교육』20-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pp. 106-107.
박수진,「한국어 학습자의 서사 담화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2, pp. 86-97.
신수송,「독일어 구조와 의미」,『독일문학』41-4, 2000, p. 290.
이관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문법론』, 집문당, 2005, pp. 267-268.
이익섭・채완,『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1999, p. 267.
이익환,「국어 심리동사의 상적 특성」,『애산 학보』15, 애산학회, 2000, pp. 32-42.
이채연,「동작류에 따른 한국어 시제와 동작상 습득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pp. 86-88.
이해영,「한국어 학습자의 시제표현 문법항목 발달패턴 연구」,『이중언어학회』22, 2003, pp. 269-298.
최동주,「국어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pp. 180-190.
_____,「시제와 상」,『문법 연구 와 자료』, 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서울; 태학사, 1998, pp. 227-260.
_____,「동적 관점에서의 시제 연구」, 한국어학회 49차 전국학술대회, 2009, pp. 52-68.
Andersen, R, W, Developmental, “sequences: The emergence of aspect marking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T. Huebner & C. A. Ferguson(Eds.), *Crosscurrent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Linguistic Theories*, Amsterdam: Benjamins. 1991, pp. 305-324.
Bardovi-Harlig, K, “The relationship of form and meaning. A cross-sectional study of tense and aspect in the interlanguage of learner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pplied Pshcholinguistics*, 1992a, 13, pp. 253-278.
Bardovi-Harlig, K. and Reynolds, *The Role of Lexical Aspect in Acquisition of Tense and Aspect,* 1995, pp. 107-131.
Bardovi-Harlig, K. *Tense and Aspec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Form, Meaning, and Use*,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0, pp. 21-49.
Berretta, M, “Morphological markedness in L2 acquisition”, In R. Simone

(Ed.), *Iconicity in Language,* Amsterdam: Benjamins. 1995, pp. 197-233.

Collins, L, *Marking time : The acquisition of tense and grammatical aspect by French-speaking learners of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ncordia University, Montreal, Quebec, 1999.

Shirai, Y. A, "Multiple-factor account for form-meaning connection in the acquisition of tense-aspect morphology", in B. VanPatten et al. (Ed.) *Form-meaning Connec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EA, 2004, pp. 91-112.

Salaberry. R, "The development of aspectual distinction in academic L2 French",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4*, 1998, pp. 508-542.

A Study on the Usage of Past Tense Marker in KSL

Jang, Gi-Nam

This study explored the acquisition of the tense-aspect markers and the use of the past tense {-eott} by the aktionsart of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as their second language for the academic purpose. Tense-aspect expression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grammatical items for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Time talk’ is expressed by a verb which has three semantic features - tense, aspect and aktionsart. There are present, past and future in the tense. The aspect represents the completion or incompletion of the event. Aktionsart expresses movability, continuity and termin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learners’ use of the past tense {-eott} focused on the learners’ texts, dividing the verbs into five: stative; activity; achievement; and accomplishment verbs based on Vendler (1967)’s verb classification adding psychological verbs. There are two different perspectives in the study of “Time talk”. One separates tense and aspects and the other integrates them. This paper adopted the latter.

Key words: Second language, tense, aspect, Aktionsart, Past-tense, {-eott}, semantic features, cross-sectional study

장기남
소속: 영남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주소: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전화번호: 010-7583-0455
전자우편: jjggnn5@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2월 28 일 투고하여
2013년 4월 10 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30 일 게재 확정함.